

## 풍부한 역사를 지닌 요코테의 전통 스노 돔, 가마쿠라

아키타현에서 눈 건축물인 가마쿠라를 만들어 온 역사는 400 년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둥그스름한 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도시대(1603~1867 년) 초기 아키타의 가마쿠라는 지붕이 없고 깃발로 장식된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코테시에는 현재 아키타현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돔 형태에 가까운 모양을 한 눈으로 된 가마쿠라의 기록이 있습니다. 가마쿠라의 형태나 용도는 시대와 함께 변화해왔지만 현지에 뿌리내린 전통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초기의 가마쿠라

가마쿠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무가의 아이들이 깃발이나 새해 장식을 들고 눈으로 만든 네모난 건물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래하면서 풍작과 가족의 안녕을 빌고 공양을 드립니다. 기록에는 이러한 건물이 ‘유키시로(설성)’나 ‘유키카베(설벽)’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으로 된 건물의 장식이나 아이들의 노래에 “가마쿠라”라는 단어가 쓰였기에 건물 그 자체를 가마쿠라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코테에서도 무가의 아이들은 유키카베 형식의 가마쿠라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상가의 아이들은 마을 우물이나 강 옆에 작은 설동(눈 속을 파서 만든 구덩이)을 만들어 물의 신께 공양을 드리고 기원을 올렸습니다. 19 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무사 계급이 폐지되자 가마쿠라와 관련된 풍습은 쇠퇴해 갔습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 년)에 들어서자 가마쿠라는 수신 신앙(물의 신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멀어졌고, 주로 아이들이 즐기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마쿠라 안에서 놀거나 새전 또는 떡을 모아서 가마쿠라 안에 있는 작은 신단에 바칩니다.

### 현대의 가마쿠라

근대 이전의 가마쿠라는 대부분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진 눈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모양도 작고 완전한 돔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요코테시는 1959 년, 돔 형태의 가마쿠라를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동차의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작은 크기의 가마쿠라를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눈 축제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가마쿠라는 전문 장인이 만듭니다. 높이가 3m 이고 벽 두께가 약 70cm 나 되는 가마쿠라에는 약 20t 의 눈이 사용됩니다. 가마쿠라 안에는 물의 신께 공양을 드리기 위한 신단이나 돛자리, 방석, 화로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화로에서 떡을 굽거나 일본 감주를 데우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이트탄세(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말을 걸고 대접합니다.